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승복한다
(마태 6:34)

사진 : 최계영 수산내(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연중 제8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49, 14~15

화답송 시편 62(61), 2~3, 6~7, 8~9가 (© 6L 참조)

◎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을 고요히 기다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그분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

3월 1일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교회는 이날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 위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며,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킵니다. 사순 시기 교황님 담화문 요약문은 주보 4면,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제2독서 코린토 1서 4, 1~5

복음환호송 히브 4, 12 참조

◎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복음 마태오 6, 24~34

영성체송 시편 13(12),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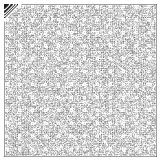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www.catholicbusan.or.kr

2017년 사순 시기 운동 (주제: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

사랑의 단식제 권고일: 4월 7일(금)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헌금의 날: 4월 9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
- 공동헌금은 부산교구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소유냐 존재냐

“어떤 사람이 끈덕지게 빌어 하느님께 세 가지 소원의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우선 그는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아내가 죽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여자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내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소원으로 무엇을 청할까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소비주의 문화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증받기 위해 많이 소유하여 소비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약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상 우리는 가능한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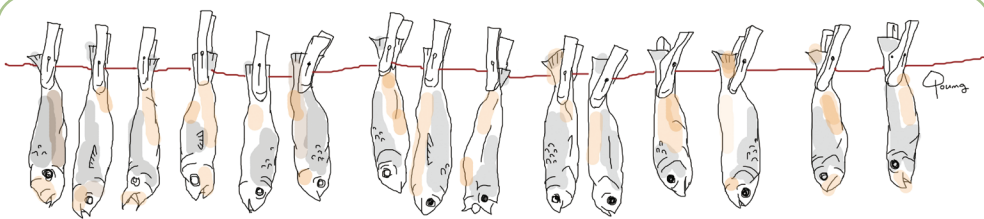
들의 안녕, 봉헌과 가난한 이웃들과의 나눔 등을 위하여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심지어는 하느님조차도 재물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취감으로써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쩔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는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만큼 더 많이 생겨나는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도,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도, 그것으로써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기도, 심지어는 약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기까지 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공허함뿐입니다.

그 공허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마태 6, 33)고 말씀하

시는데, 그것은 소유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 특히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존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지는 해보다, 적당히 구름이 깔려있는 산 너머로 지는 해가 훨씬 더 예쁜 노을을 만들어 주변을 더욱 넓게 물들이듯이,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바로 그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구 경 국
알로이시오 신부
덕신성당 주임



지금까지

그러니
관참습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목소리 좋다고 노래까지 잘 부르고
몸 좋다고 운동까지 잘하던가요.
잘 먹는다고 요리까지 잘하고
얼굴 예쁘다고 마음까지 고운 건 더더욱 아니더군.
한사람이 전부를 갖진 못하나 봅니다.
장점이란 본래 그리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
금세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잘 들어줄 줄 아는
당신의 장점을 응원합니다.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2.27(월)~28(화)
구경국 신부(덕신성당 주임)
3.1(수)~4(토)
이철희 신부(사하성당 보좌)

문자참여 #2340

2017 신부들의 수다
☞여보세요~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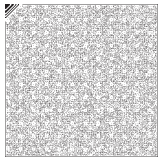
타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목소리 편지를 전해주세요!
방송 : 매주 토요일 13:00~14:00
참여 신청 : (051) 600-8825
선물 : 10만원 상품권(백화점)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3.3(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권기연 율리안나



가짜뉴스, 진짜뉴스



탁 은 수 베드로

요즘엔 뉴스도 가짜가 있습니다. 거짓정보를 뉴스형식으로 만들어서 퍼트리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유행입니다. 가짜뉴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가 유행이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전파속도가 워낙 빨라서 막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불편한 진실보다는 자신이 믿는 것을 검증 없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나누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편 가르기’ 식의 군중심리도 가짜뉴스가 커지는 원동력입니다. 기술문명을 이용해 진실을 뒤덮으려 한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는 거짓의 바벨탑과 다르지 않습니다.

2천여 년 전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이들은 얼마 안 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떠들썩한 이벤트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의 아들 대신 자신들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편견을 따른 겁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로 주님을 판단한 당시의 유대인들과 지금의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만고불변의 진

실은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의 근원이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고 진실의 소리, 진짜뉴스는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 한때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던 인간의 과학이 하느님의 진실을 말해 줄까요? 그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 주님이 내신 대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주님을 느끼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하느님이 계신 자리, 바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진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뜻을 알아듣고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화내고 욕심부리던 일상에 가려졌던 하느님을 뵈기 위해 조용히 마음의 촛불을 밝히는 일, 그게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참 세상의 시작입니다.

부산MBC 보도국 정경부장
fogtak@naver.com

환경과 생명 구별되지 않는 기쁨

추임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소리나 민요, 잡가 등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아닌 청중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흥을 돋우는 소리입니다. 흔히들 ‘얼씨구’, ‘좋다’, ‘그렇지’ 등을 사용합니다. ‘정도 이상으로 칭찬해주다’라는 뜻을 가진 ‘추여주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일의 성격에 따라 방식을 구분하는 오늘의 삶에는 낯선 소리입니다. 추임새는 청중도 소리꾼도 구분하지 않고 서로가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 소리를 만들어내고 즐기게 해줍니다. 농업이 그런 추임새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농업에서는 일과 놀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내기나 타작 때와 같이 품앗이로 서로 어울려 일을 할 때면 노래를 부르고 추임새를 보태며 즐겁습니다. 그저 일의 고됨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 놀이에서와 같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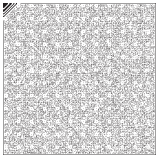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일해 놀이를 돈을 주고 사고, 일과 운동이 구분되어 일로 녹초가 된 몸으로 운동을 따로 하여 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 놀이, 운동이 다 나뉘어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은 끊임 없는 족쇄가 되어 일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하지 않을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것은 이루지 못할 신기루가 되어 멀리 허공에 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주권을 노동을 통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창조주의 뜻”(『노동하는 인간』 9항)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노동(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인생의 행복,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요? 여기, 지금과는 다른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채울 것인가요? 자연과 농업, 구태의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낡은 가치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즐거운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타인은 선물입니다.



사순 시기는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을 깊이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 타인은 선물입니다.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 복음은 가난한 이를 훨씬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비참한 상황에서 일어설 힘도 없고, 몸은 종기투성이며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습니다. 가난한 이는 라자로이며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도와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 상황에서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라자로를 우리에게 타인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명은 선물이기 때문에 환대와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눈을 열어 생명, 특히 취약한 생명을

환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2.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부자가 어떤 모순에 빠져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난한 라자로와는 달리 부자는 이름도 없이 그저 “부자”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죄에 따른 타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타락은 돈에 대한 사랑에서 허영과 자만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타락의 근원이며, 시기와 갈등과 의심의 원천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타인에게 과시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도덕적 타락의 가장 저급한 단계는 자만입니다. 부에 대한 사랑으로써 타락한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은 일종의 맹목에 낚는 것입니다.

3.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는 모두 죽었고 이 비유의 중요한 부분은 저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는 저승에서 어떤 일이 벌어

지는지 보게 됩니다. 부자는 고초를 당하면서 비로소 라자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약간의 물로라도 자신의 고통을 줄여 주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라자로에게 요청한 것은 세상에서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바로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는 힘으로 인간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켜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마음을 닫아 버리면, 결국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선물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과 성사와 우리 이웃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라는 선물을 새롭게 찾고, 우리를 눈멀게 하는 죄에서 정화되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회개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성경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해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당에 신축 기금을 내려고 해도, 주일 헌금을 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무조건 나쁘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 지나치면 모자람만큼 못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한 믿음을 두면 이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바로 하느님과 같습니다. 가난은 바로 이상이 되어 버린 재물을 멀리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버리고 금욕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식주의 최소한 필요마저도 거부하고 극단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덕으로서의 가난과 빈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으로서의 가난은 우리 삶에 최소한 필요한 것만을 지니는 것인 반면,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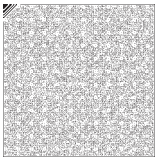
곤은 삶에 필요한 것조차 끊어 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곤이 아니라 바로 가난의 덕을 가르칩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망하기를 부추기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필요 이상의 음식 섭취로 살이 찌면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나 단식을 하듯이, 하느님을 따르는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 우리도 재물에 대한 단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전 한 닢을 헌금으로 넣은 과부를 칭찬하시며 결코 헌금의 많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많아서, 사랑과 믿음이 없어서, 하느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 albkw93@hotmail.com



교구 소식

본당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본당들 (1)



세계 병자의 날 행사



본당 복음화의 해를 지내며, 교구의 본당들이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동성당(주임 : 전동기 신부, 회장 : 김창곤 시몬)은 최근 '마르코 쉼터'를 완공하여, 신자들에게 본당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동향성당(주임 : 김홍민 신부, 회장 : 백알군 라우렌시오)은 매월 축일을 맞은 신자들에게 주임 신부의 자필 축하 편지를 전달하고, 미사 중에 안수식을 거행하고 있다.

제25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메리놀병원과 부산성모병원에서는 입원 환우들과 내원객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메리놀병원은 지난 2월 2일(목) 마리아홀에서 음악 및 개그 공연을 개최했고, 10일(금) 입원 환우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부산성모병원에서는 10일(금) 병원 로비에서 '아가피야체'의 음악 공연, 무료 일일차집 운영, 무료 혈압 및 혈당 측정이 있었다.

음악교육원, 제26회 겨울 음악학교

2월 10일(금)~11일(토) 107명 참가
 내용 : 발성법, 합창지휘법, 그레고리오 성가 등 교육
 원장 : 임석수 신부

제 26 회 겨울음악학교
전공실기 심화학습 및 전례음악의 실제
 일시 : 2017년 2월 10일(금) ~ 11일(토) 장소 : 부산성모병원 음악교육원

사순 시기 묵상집, 『함께 걸으며』 발간



선교사목국(국장 : 장재봉 신부)은 2017년 사순 시기 묵상집 『함께 걸으며』를 발간했다. 손삼석 주교는 여는 글에서 “묵상집이 교우 여러분들께서 걸으시는 길의 길잡이가 되어 여러분을 주님의 부활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라며

신자들의 사순 시기 신앙생활을 격려했다.

특별히 매주 묵상한 복음 내용을 p.113-114 '함께 꾸미는 자리'에 정리해서, 선교사목국으로 보내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구입 문의(1,500원) : 성바오로 서원 521-8898, 남천 빨마 북카페&성물점 627-5226.8

구봉성당,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구봉성당(주임 : 임성환 신부, 회장 : 정성호 파트리치오)은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6일(목) 19:30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로 가톨릭의료원 원목실장 박근범 신부(17대 주임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본당에서는 매달 역대 주임 및 출신 신부의 특강, 50주년 감사미사, 사진전, 시화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푸르실로 참가 신청 접수 및 마감
 제396차(형제) : 3.2(목)~5(일)
 제397차(자매) : 3.9(목)~12(일) / 마감 : 2.28(화)
 문의 : (055)388-5734, (팩스)388-5733, 본당 간사

정하상바로영성관 사순 피정
 월요일 하루 피정 : 3.6, 3.13, 3.20, 3.27
 10:00~16:00 / 문의 : (055)383-3101

제83차 부산선택주말
 · 3.17(금)~19(일) · 푸른나무 교육관
 대상 : 40세 이하의 청년, 비신자 환영
 참가비 : 10만원 / 접수 : 3.7(화)까지
 문의 : 010-4343-5607, cafe.daum.net/pusanchoice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개인간병 및 호스피스완화도우미(교육수료자)
 만 60세 미만 간병경력자
 문의 : 933-7042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주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제4기 영성심리상담 강좌(1년 과정)
 1학기 : 3.6~6.12 매주 월요일 14:00~17:00
 · 가톨릭센터 3층 / 강좌료 : 15만원(교재 무료 제공)
 강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과목 : 영성과 심리상담, MB에 의한 영성과 기도생활 심리검사, 트라우마의 원인과 치료기법, NLP의 치료기법 / 문의 : 463-7866
 * 1년과정후 영성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수여
 특전 :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상담학회의 수련과정 인정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3.3(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밤중 성시간
 · 매주 목 23:00 · 우동성당 / 미사도구, 묵주 지참
 문의 : 010-7124-0721(이시찬 신부)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 2.27(월) 14:00 / 문의 : (054)955-4133~4
 · 부산종합사회복지관(땅미성당 옆)
 지도 : 최영배 신부(영성강의, 미사 주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2.28(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 3.3(금) 14:00~17:00(16:00 미사)
 주제 : 거룩한 미사 / 주례 : 김대선 신부
 · 성분도 은혜의집 / 문의 : (02)379-8091

청년 사순 피정 <깨어 있어라>
 · 3.19(일) 10:00~16:00 · 전교가르멜청원소
 피정비 : 2만 5천원 / 대상 : 35세 이하 청년 남녀
 문의 : 010-9479-7334(전교가르멜수녀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의 마음의 영성학교 3기
 <마음의 영성>을 배우는 영성 아카데미
 1학기 : 마음의 영성, 성경과 기도생활
 개강 : 3.7~5.30 매주 화 14:00~16:20
 문의 : 581-3114(성심영성센터)

무아의 집 요양보호사 구함
 근무시간 : 09:30~18:00 나이 : 60세 미만 여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본 각 1부
 문의 : 010-5702-0179, ck5778@hanmail.net

3월 한티순교성지 피정
 · 3.4(토)~5(일) - 목숨을 닦아준 사랑, 3.20(월) - 쉬는 하루, 3.25(토)~26(일) - 우리시대 엘빙과 힐링
 · 한티피정의 집 / 문의 : (054)975-515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보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or.kr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3.5(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성골롬반외방선교회	3.5(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3777-4688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6 대학 특성화사업(CK사업) 3개 부문 선정!
 2016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2016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 2년 연속 선정!

메리놀병원 신장이식팀
 국내 최초 Rh 음성, 혈액형이 다른 신장이식 수술 성공
 문의 : 461-2393(메리놀병원 신장내과)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가톨릭센터 무료 대관 신청 안내
 대상 : 작가 지망생, 아마추어 시각예술 단체 및 개인
 장소 : 마음발걸러리 / 기간 : 수시
 일상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여러분들께 전시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간병사(개인/공동)모집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재가기관(방문요양/목욕)
 성별, 학력 제한없음
818-1004, 245-1004
 (주)천사사람들

고품격노인요양서비스 전문기관
무지개언덕
노인전문요양센터
 입소 문의 **338-5788**
 북구 구포3동 주민센터 옆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용,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엽, 박성욱
554-1088/동래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과 : 박인호(루카), 한정문
 소화기 내과 : 최병락, 문재현, 유찬희
 류마티스 내과 :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검진 : 주한나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

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네스)

지압식 척추 교정운동구
 기구에 누워 목, 척추, 허리 지압
척추는 인체의 대들보
 하루 2번, 2주만 후 치유체험
 김 영 숙(크리스피나)
010-8312-0510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자산관리
동부증권
 개인금융 및 법인금융
 팀장 정 기 준(프란치스코)
241-5454, 010-3186-3897
 센텀시티역 2번 출구

내일성형외과
 최수종(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이식,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부곡대로 9(마린병원 2층) / 서구청 옆